

鹿角 輸入사후관리대책 개요

日刊貿易 宋 權 鎬 기자

藥效면에서 특별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녹각이 해마다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어 실 수요량 증명등 적절한 사후관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의학적으로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슴의 여린 뿔인 녹용과는 달리 角質화된 사슴뿔로서 약효가 현격하게 떨어져 보조약재로만 쓰이는 녹각이 해마다 800톤이상이 수입돼 외화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한의원과 한약재상등에서는 소비자들이 녹용과 녹각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녹각을 녹용으로 속여 조제하거나 판매함으로써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녹각의 수입가격은 녹용 수입가격의 10% 미만으로 녹각을 녹용으로 속여 판매하게 되면 판매하는 측은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게 된다면서 녹각은 반드시 사용처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실수요자만이 수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94년중 녹각의 평균수입가격은 CIF기준 킬로그램당 10달러87센트, 녹용의 평균수입가격은 296달러20센트로 녹각의 가격은 녹용의 4%미만이였다.

일반적으로 약효를 인정받는 녹용은 매년 2월 혹은 3월중 기존뿔이 落角된 후 새롭게 돋아나는 사슴뿔을 落角된지 80일 전후에 채취한 것으로 혈액이 순환되는 상태에서 절단된 사슴뿔을 가리키며 녹각은 낙각된지 115일 이상이 경과해 딱딱해지는 소위 '角質化'된 상태의 뿔로서 그 이듬해에 落角이 된다.

한편 녹각은 지난 94년중 1000톤, 1100만 달러어치가 수입돼 93년의 820톤, 910만달러에 비해 물량면에서는 22%, 금액면에서는 20.9%가 늘어났다.

올들어서는 6월말 현재 427톤, 470만달러어치가 수입됐는데 뉴질랜드産이 수입물량중 5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녹용과 달리 중국産의 점유율이 가장 앞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94년중 수입된 중국産 녹각은 257톤으로 전체수입물량의 25.5%를 차지했고 몽골産과 독일産은 각각 18.8%와 10.2%를 차지했다.